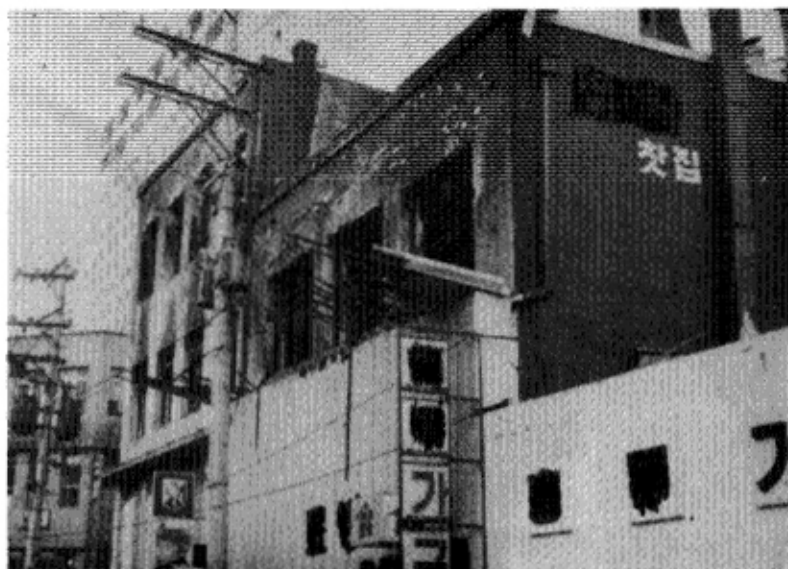


小規模 火災에 많은 人命被害
都心 「살롱」의 火災

〈R 「살롱」 火災〉

1977. 3. 5

—窓門 옆 高壓線에 매달려 脱出하다 3名은 感電墜落 死亡하기도—
死亡 14名, 負傷 1名, 財産被害 1千萬원(動産 不包含)



화재후의 건물 외관.
◀사진 왼쪽의 건물 옆에 설치된 고압선에 매달려 탈출하다 3명이 感電墜落死했다.



◀인명피해가 가장 많았던 4층 숙소.
이곳에서 8명이 숨졌다.

●一般事項

建物用途：複合建物

所在地：서울特別市 中區

火災日時：1977. 3. 5, 02:40~04:10

發火位置：3층 「살롱」 주방

火災原因：3층 「살롱」의 電氣「히터」(熱風機) 過熱 또는 漏電 推定

●建物概要

地上 4層, 延面積 1,763m²의 鐵筋「콘크리트」建物로 4층은 組積造,木「트러스」上 합석-「스레트」지붕. 1층은 가구점, 다과점, 2층 다방, 3층 「살롱」, 4층 종업원 숙소, 사무실, 창고로 된 複合建物. 大部分의 用途가 接客業所였으므로 合板, 木材마루, 「카펫」, 「키텐」 등 可燃性 内粧材가 많이 설치되어 있었다. 市内 中心街 8m도로 교차로의 「코너」에 位置하여 2面이 도로와 面하고 있고 2面은 他建物과 接하여 있었다. 自動火災探知設備 및 屋內消火栓 등 基本的 消防施設조차 갖추어져 있지 않았다.

●火災狀況

火災는 1977. 3. 5, 02:40시경 한밤중에 3층 「살롱」 주방에서 발생하였다. 당시 종업원 14명(男 11名, 女 3名)은 4층 종업원 숙소인 2개의 방에서, 「살롱」 지배인은 이 숙소와 맞붙어 있는 사장실 「소파」에서 잠들어 있었다. 火災가 發生한 3층 「살롱」은 合板 内粧 및 간막이, 化學纖維로 된 「카펫」 등 可燃性 内粧材가 특히 많이 設置되어 있어 삼시간에 全層이 불길에 휩싸이고 계단 및 外窓을 통하여 4층으로 延燒되어 갔다. 이들이 잠에서 깨어났을 때에는 이미 4층 복도에 火災과 煙氣가 가득찬 후인 데다가 3층 「홀」의 「비닐」의자, 「카펫」 등이 타면서 내뿜는 有毒「가스」와 연기에 窒息, 옥상으로 통하는 出口를 찾지 못하여 無慘하게 숨겨갔는데 鎮火後 現場調査結果 3명은 창문을 깨고 뛰어 내리다가 건물 옆을 지나는 高壓線(6,600V)에 걸려 感電 墜落死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다행히도 「살롱」 지배인만은 창옆으로 나있는 불발이 흥통을 타고 脫出하다 枕傷을 입었으나 生命은 건질 수 있었다. 첫 目擊者인 防犯隊員에 따르면 순찰중 3층 주방에서 불길이 솟아오르는 것을 發見, 70m쯤 떨어진 과출소로 달려가 소방서에 신고하고 돌아와 보니 이 때는 이미 불길이 3층을 뒤덮고 4층으로 번지고 있었는데 4층에서 悲鳴이 들려 건물안으로 들어가려 했으나 불길이 통로를 막고 연기와 有毒「가스」로 인해 失敗했다고 한다.

신고를 받고 소방차 69대가 출동, 진화작업을 했으나 신고가 늦은 데다가 영하 섭씨 10도 이하의 강추위로 소화전이 얼어붙어 「탱크」차의 물만을 쓸 수밖에 없었고 건물 옆에 설치된 高壓線이 장애가 되었으며 바람까지 거세어 인접건물로의 연소를 막는데 그쳤다. 이 불은 約 1시간30분 후인 04:10시경 잡혔는데 3,4층 500여m²가 燒失되고 1~2층 및 기타 부분 1,260여m²가 水浸 및 煙損을 입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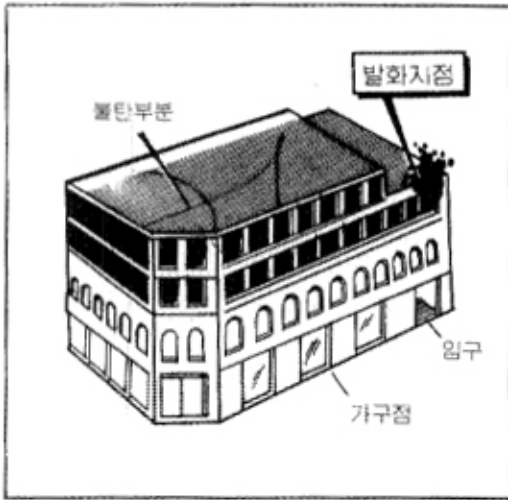
●被害狀況

人命被害：死亡 14名, 負傷 1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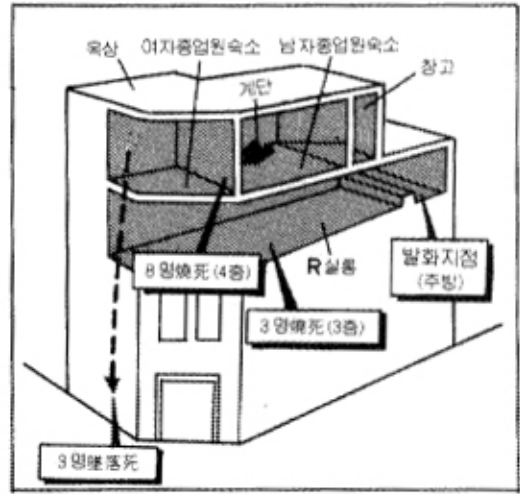
財産被害：約 1千萬원(動産 不包含)

● 問題點

1. 可燃性 内粧材로 인한 燃焼의 容易와 火災荷重의 過多
2. 警報設備, 消火設備, 避難器具 등 消防施設의 全無
 - 특히 自動火災探知設備 未設置로 火災感知가 늦어져
 - ① 消防署에의 申告가 늦어 初期鎮火 失敗
 - ② 火災가 擴大되어 단하나의 避難路인 복도가 火災과 煙氣에 휩싸이자 피난기 구조차 없어 人命被害가 컸음.
3. 강추위에 의한 公設消火栓의 凍結로 인한 消火水의 不足과, 建物에 近接設置된 高壓線으로 인한 消火活動의 困難.
4. 建物에 近接設置한 高壓線에 매달려 脫出하다 3名이 感電墜落 死亡.



건물 외관 입체도



내부구조 입체도